

제주시, 재활용품 배출하면 '포인트' 지급

관내 재활용도움센터 115곳 중 110곳에서 전면 시행 보상 방식 확대… 무게 1kg 미만도 현금성 포인트 적립 시 “나머지 센터도 시행 계획”… 서귀포시 “추후 검토”

올해부터 제주시 지역 대부분의 재활용도움센터에서 폐건전지나 종이팩 같은 재활용품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기준에 종량제봉투로 한정됐던 재활용품 보상 방식이 현금성 포인트로 확대되면서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지역 재활용도움센터 115곳 중 110곳에 전자저울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서 1kg 미만의 재활용품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현금성 포인트를 10원 단위로 적립하는 체계가 갖춰지면서다. 전자저울을 활용하면 재활용품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보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현금성 포인트를 선택할 경우 그 무게가 1kg에 못 미

따라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재활용품 회수보상제가 시행돼 왔다. 하지만 보상 기준이 1kg당 10ℓ짜리 종량제봉투 1장으로 정해져 있어, 이 무게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별 다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에 전자저울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서 1kg 미만의 재활용품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현금성 포인트를 10원 단위로 적립하는 체계가 갖춰지면서다. 전자저울을 활용하면 재활용품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보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현금성 포인트를 선택할 경우 그 무게가 1kg에 못 미

치는 900g 이어도 210원이 적립된다. 보상 기준은 1g당 0.24원이며, 10원 단위까지 지급된다.

이처럼 현금성 포인트를 적립 받으려면 ‘이플’ 실물 교통카드를 지참하거나 ‘모바일이플’ 앱을 설치해야 한다. 적립 포인트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쓸 수 있다는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도남동과 삼도동, 삼양동, 이도동 등에 있는 재활용도움센터 9곳에 전자저울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해 왔다. 이어 지난해 국비 14억여 원을 들여 나머지 101곳에 전자저울을 추가로 설치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전체 115곳 중에 5곳에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서귀포시 지역 재활용도움센터

도 마찬가지로 종량제봉투로만 보상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자저울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올해 신규로 설치될 예정인 재활용도움센터 6곳까지 (전자저울 시스템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했고,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자저울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제주시의 운영 상황을 보고 추후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매주 일요일과 지구의 날(4월 22일), 환경의 날(6월 5일), 자원순환의 날(9월 6일) 등 환경기념일을 ‘재활용데이’로 운영해 기존의 두 배의 보상을 제공한다. 재활용품 1kg당 10ℓ 종량제봉투 2장 또는 현금성 포인트 480원을 지급한다. 김지은기자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제주시, 지원금 신청 접수

제주시가 오는 2월 2일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440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투입 예산은 19억 1000만원이며, 지원 분야는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 지붕 철거·처리 등이다.

주택 지붕 철거·처리에는 1동당 최대 700만원이 지원된다. 지붕 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에는 1000만원까지, 일반 가구엔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은 1동당 철거 면적을 200㎡ 이하로 한정해 다수 시민에게 지원금을 분배할 방침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단,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히 철거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오랜 기간 방치돼 훼손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비트 수확하는 농민들 27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서 농민들이 비트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귀포시 바다환경지킴이 150명 내달 3일까지 접수

서귀포시는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2026년 서귀포시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150명을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서귀포시 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희망 근무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체력 시험(악력, 달리기), 3차 면접시험을 거쳐 2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

표한다.

올해 선발된 바다환경지킴이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97개 월간 서귀포시 관내 읍면동에 배치되어 구역별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처리, 투기 방지 및 계도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근로조건은 제주도 생활임금을 적용해 1일 7시간, 월 221만원이다. 위영석기자

도감사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감사 결과 무자격업체 5억원대 수의계약 적발

업무처리 개선 등 24건 처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수억원대 디자인 활동 스튜디오를 구축하며 무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 평가도 엉터리로 하는 등 특혜성 사업을 추진해오다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제주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 24건의 부적정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기관 경고와 함께 14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022년 5억원대 ‘디자인 활동 스튜디오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면허도 없는 업체와 실시설계와 감리 용역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안서 기술평가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며 21명의 예비위원을 특정 사유없이 구간을 나눠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

수도 잘못 산정해 부적격 업체를 선정하는 등 특혜성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승진가산금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와 병합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들이 건축사 면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약 담당자로 받고도 무시하는 등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징계’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는 이밖에도 승진가산금 증복 지급, 비상임이사 임용 과정 자격 심사 허술, 도의 전시 판매장 3개소 재고조사 미비, 이제주 속 운영 부적정, 개인정보 처리 및 CCTV 운영 미흡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인사원칙 사전 미공개 등 부적정 업무 처리에 대해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위영석기자 ysw1968@ihalla.com

“5년간 449억 투입해 노동자 보호”

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확정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확대

제주지역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인공지능(AI) 시대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는 노동 전환 훈련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제주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5년간 449억원을 투입해 총 43개 과제를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택배기사, 대리운전, 방문강사 등 8개 직종에 한정된 산재보험료 지원을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으로 확대한다. 이후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정부 기조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해 특수형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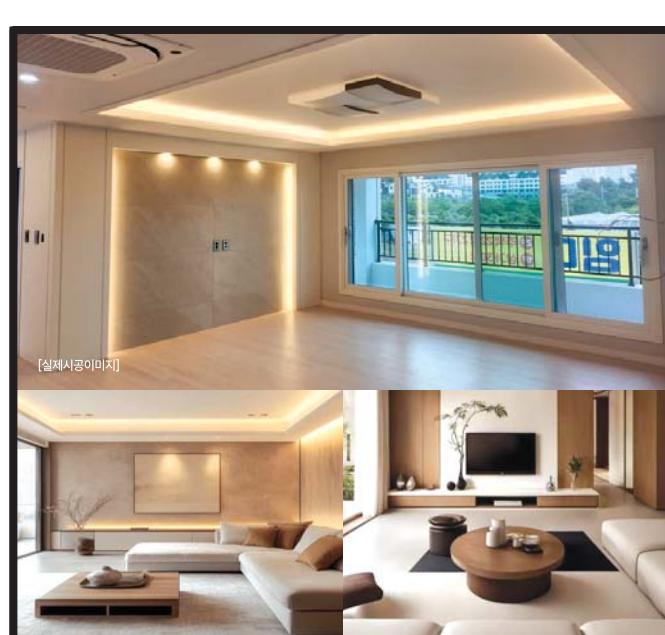
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안에 포함한다.

또 제주도 AI, 자동화, 기후위기 등에 따른 일자리 소멸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앞으로 산업별·직종별로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기는지 미리 파악해 노동자가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게 전환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의로운 노동 전환 지원·훈련센터’도 설치한다.

이밖에 혹서·혹한기에 아외에서 일하는 배달·택배·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건강 보호 물품을 연간 5400개까지 늘리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계획은 도민 인식조사와 노동자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원탁회의 등을 거친 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논의해 마련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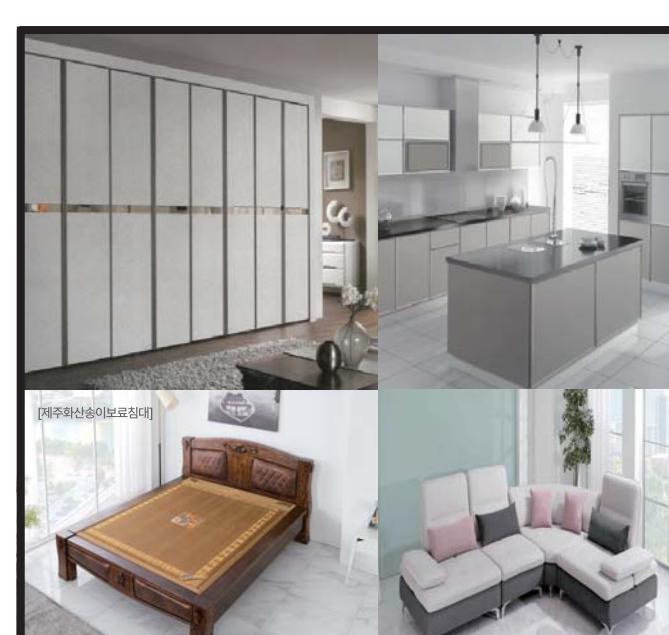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씽크대 제작/불박이장/침대/소파/가구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식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